



김광현 3경기 연속 패·양현종 6경기 무승... 1988년생 동갑내기 수난

한국을 대표하는 좌완 투수로 활약하던 1988년생 동갑내기 김광현(SSG 랜더스)과 양현종(KIA 타이거즈)이 2025시즌 초반에 부침을 겪고 있다.

김광현은 올 시즌 7경기에서 35%이닝을 던지면서 1승 4패 평균자책점 5.30에 그쳤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3월23일 인천 두산 베어스전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뒤 썩처럼 승수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6경기에 등판한 양현종은 아직도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고, 3패만 떠안았다. 평균자책점은 6.75에 달한다.

양현종과 김광현은 소속팀의 에이스일 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왼손 투수다.

양현종은 KBO리그에서 통산 519경기에 등판해 2534⅓이닝을 던지며 179승 121패 평균자책점 3.87의 성적을 거뒀다.

김광현, 올 시즌 7경기에서 1승 4패 평균자책점 5.30

양현종, 올 시즌 6경기 등판 3패... 평균자책점은 6.75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시즌 연속 170이닝 이상을 던져 KBO리그 최초 기록을 세웠고, 통산 소화 이닝에서 3003이닝의 송진우에 이어 2위에 올라있다.

또 통산 2097개의 탈삼진을 잡아 이 부문 1위다. 통산 다승 순위에서 송진우(210승)에 이어 2위고, 179승 중 177승을 선발승으로 거둬 통산 최다 선발승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김광현도 통산 394경기에서 2213⅓이닝을 소화하며 171승 102패 평균자책점 3.36을 작성했다.

통산 다승 부문에서 송진우, 양현종에

이어 3위다. 양현종이 1위인 통산 탈삼진 부문에서 송진우가 2048개로 2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김광현이 1916개로 3위를 달린다. 통산 이닝에서도 4위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 최고의 좌완 투수로 활약한 만큼 둘 모두 태극마크도 술하게 달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신화의 주역이기도 한 김광현은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과 2019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국가대표로 뛰었다.

양현종도 2010년 광주,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19년 프리미어12에서 대표팀 마운드를 지켰다.

하지만 올 시즌 들어 양현종과 김광현은 이름값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현종은 1승만 추가하면 KBO리그 역대 두 번째로 통산 180승 고지를 밟을 수 있지만, 지독한 아홉수에 시달리고 있다. 2024시즌 막판 세 차례 등판까지 포함하면 9경기 연속 승리가 불발됐다.

올 시즌에는 스스로 무너지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올해 양현종은 퀄리티스타트(선발 투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딱 한 번 밖에 하지 못했다. 3월29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6이닝 3실점(1자책점)한 것이 유

일하다. 이때에도 KIA가 역전패를 당하면서 승리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11일 광주 SSG전에서는 4⅓이닝 동안 안타 7개와 볼넷 3개를 내주며 6실점으로 흔들렸다. 이날 17일 광주 KT 위즈전에서 5⅓이닝 3실점으로 그나마 나은 투구를 했지만, 25일 광주 LG 트윈스전에서 5이닝 6피안타 4볼넷 5실점으로 무너졌다.

지난해 12승 10패 평균자책점 4.93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김광현은 올해 주장까지 맡아 절치부심했지만, 부진을 벗지 못하고 있다.

김광현도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한 것이 이달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6이닝 무실점) 뿐이다. 팀이 연장 끝에 지면서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다.

이후 3경기 연속 패전을 떠안았다. 16일 인천 한화전에서 5이닝 5실점, 22일 수원 KT전에서 5⅓이닝 5실점 4자책으로 흔들렸고, 27일 인천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오선진에게 만루포를 허용하는 등 3⅓이닝 9피안타(1홈런) 7실점으로 난타를 당했다.

김광현과 양현종 모두 3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전성기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어느정도 성적 하락도 예상됐던 터다. 하지만 예상보다도 부진이 깊다.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아있다. KBO리그를 호령했던 김광현과 양현종이 시즌 초반 부진을 벗고 반등해 베데람의 관록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에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만일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공사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의)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KLPGA 첫 정상’ 김민선 “메이저 앞두고 선물 같은 우승”

덕신EPC 챔피언십 생애 첫 우승... “향후 LPGA 투어 진출 목표”

김민선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덕신EPC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에서 생애 처음 우승했다.

김민선은 27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이로써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적은 김민선은 2위 임진영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2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 단독 선두로 도약한 김민선은 이후 1위 자리를 지키며 신설 대회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2023년 KLPGA 투어에 데뷔한 2003년생 김민선은 지난해 이벤트 대회인 위믹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으나, 정규 투어 정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 개인 최고 성적은 2023년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과 지난해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준우승이었다.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김민선은 66번째 출전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민선은 우승 상금으로 1억8000만원과 대회 주최사인 덕신EPC가 우승 보너스로 책정한 1억8000만원을 더해 총 3억6000만원을 받게 됐다.

다만 보너스는 공식 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김민선은 5번 홀(파4)에서 칩샷에 성공한 뒤 6번 홀(파4)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2위 그룹의 추격을 여유있게 뿌리쳤다.

또 10번 홀(파4)과 11번 홀(파5)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일찌감치 우승을 굳혔다.

김민선은 “날씨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코스였는데, 무너지지 않고 플레이

27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GC에서 열린 '덕신EPC 챔피언십' FR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민선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KLPGA 제공

한 내가 자랑스럽다”며 “응원과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규투어 첫 우승에는 “조금 더 머물러 하고 싶다. 정규투어 우승이 간절했는데, 지금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이어 “차근차근 열심히 꾸준히 기량을 늘려서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올해 목표”라고 덧붙였다.

칩인 버디를 두 차례 성공한 김민선은 “개인적으로도 그제 가장 인상 깊었다. 그야말로 도파민이 솟는 경험이었다. 이번 대회는 쇼트게임이 효자였다”고 했다.

다음 주 메이저대회인 KLPGA 챔피언십을 앞둔 그는 “이번 대회 우승이 도움이 될 걸로 믿는다. 메이저대회를 앞두고 자신감을 갖게 해준 선물 같은 우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노력해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뛰는 선수가 되고 싶다. 올해 US여자오픈 같은 큰 대회들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6언더파 282타를 친 임진영은 준우승했고, 공동 3위(5언더파 283타)엔 유현조, 정윤지가 자리했다.

지난주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박신일은 홍진영과 공동 5위(4언더파 284타)로 대회를 마쳤다.

iM금융오픈 투어에서 처음 우승했던 김민주는 공동 7위(3언더파 285타)에 올랐다.

박현경은 공동 9위(1언더파 287타), 박지영은 12위(이븐파 288타)를 차지했다.

/뉴스시스